

보도 일시	배포시	배포 일시	2023. 4. 3.(월)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	책임자	과 장 변제호 (02-2100-2830)
		담당자	사무관 김종식 (02-2100-2824)
	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	책임자	국 장 이창운 (02-3145-8300)
		담당자	팀 장 변재은 (02-3145-8001)

금융당국은 「부동산 PF 브릿지론 구조조정 가이드라인」 마련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- 파이낸셜뉴스 4월 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-

1. 기사내용

- 파이낸셜뉴스는 4.3일 「‘부실 뇌관’ 부동산PF 브릿지론 구조조정 가이드라인 이달 나온다」 제하의 기사에서
 - “금융당국이 우선적으로 ‘브릿지론’ (사업인가 전 대출)에 대해 이달 중순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” 고 보도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- 현재 금융당국은 부동산 PF의 이해관계자간 복잡한 권리관계를 신속히 조정할 수 있도록 「PF 대주단 협약」 개정*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* 「회사채·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」(3.6일)

- 최근 변화된 PF 사업구조 등을 반영하여 참여자를 확대(새마을금고, 신협·농협 등 상호금융)하고, 의결요건을 재정비*할 예정입니다.

* (예시)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내용별로 의결기준을 차등화

- 다만, 금융당국은 「PF 대주단 협약」 외에 「브릿지론 구조조정 가이드라인」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.

※ PF 대주단 협약에 따른 사업정상화 추진시, 구체적인 금융지원 방안 및 사업장 정상화 및 자구노력 계획은 대주단 및 시행사·시공사 등 이해관계자가 결정할 사항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	책임자	과 장	변제호 (02-2100-2830)
	금융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김종식 (02-2100-2824)
<공동>	금융감독원	책임자	국 장	이창운 (02-3145-8300)
	감독총괄국	담당자	팀 장	변재은 (02-3145-8001)

대한민국
지책브리핑

